

서울시민 나눔활동(기부·봉사)

[e-서울통계 77호]

- 서울시민의 자발적 나눔 방식의 변화 및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나눔 문화 확산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함.
- 내용구성은 나눔활동인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참여여부, 나눔활동 동기, 비동참 이유, 나눔활동 형태의 변화, 향후 참여의사 등에 대한 서울시민의 나눔활동 특성을 진단해 보고, 3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1. 『요약』
 2. 『기부 활동』
 3. 『자원봉사 활동』
- 서울의 나눔 활동 특성은 서울서베이(서울시) 및 사회조사(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음.
- 자료이용 시 유의사항
 - 일부 통계표의 구성비 및 증감률은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거나, 원 자료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조사의 결과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관련통계 결과와 다를 수 있음

본문 활용 통계 설명

○ 2013 사회조사(통계청)

-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약 4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 전국은 17,66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 조사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7.15.~29.
 - 「지난 1년」은 2012. 5. 11. ~ 2013. 5. 1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 조사대상 연령 : 조사대상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13세 이상 인구임
 - ※ 2010년 이전 사회조사는 만15세이상 연령이 조사대상이었음.

○ 2012 서울서베이(서울시)

- 서울시정 및 시민생활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시정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만15세이상 서울시민 약 49,758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 ※ 표본가구는 2만가구임.
- 조사대상 기간(시점) : 2013. 10. 1. ~ 2013. 10. 30.
 - 「지난 1년」은 2012. 10. 1. ~ 2013. 9. 30. 동안임
- 조사주기 : 1년(매년)
- 조사대상 연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만15세 이상 인구임

○ 용어 정리

- 기부 :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게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자원봉사 활동 :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목 차



I. 요약	1
II. 기부 활동	2
1. 기부율 및 기부의향	2
2. 기부 이유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3
3. 기부유형 및 연령별 기부율	4
4. 기부 인지 경로 및 기부문화 활성화	5
III. 자원봉사 활동	6
5.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의향	6
6.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인지 경로	7

I . 요약

■ (기부율 및 기부방향)

- 기부 경험이 있는 시민은 소폭 감소(2011년 37.8% → 2013년 36.5%)
- 기부는 물품보다는 주로 현금 기부,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6.7회
- 향후 2년 이내 기부할 의향 있다는 시민은 증가(2011년 49.9% → 2013년 52.9%)
- 기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실제 기부율은 다소 낮음.

■ (기부 이유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1.6%)를 1위로 꼽음.
-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위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1.5%)라고 응답.
- 신념 때문에 기부한다는 시민은 증가,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기부안한다는 시민은 감소

■ (기부유형 및 연령별 기부율)

- 기부유형(중복응답)으로는 ARS(전화모금 방식) 이용 기부 23.5%, 현금 직접 기부 10.0%, 물품기부 5.7% 등의 순
- 30대 여성 기부 경험율이 45.0%로 가장 높고, 15~19세 및 60세이상 남녀의 기부율은 30%가 안됨.

■ (기부 인지 경로 및 기부 문화 활성화)

- 기부 대상자의 기부인지 경로는 대중매체(30.0%), 종교단체(23.2%), 직장·학교(18.5%) 순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52.4%)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방향)

- 201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7.7%(2011년은 18.1%), 참여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는 7.8회
- 2013년 향후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시민은 45.5%(2011년 45.6%)
-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기부 가능성 높아, 참여자 기부율(53.4%) > 미참여자 기부율(32.8%)

■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인지 경로)

- 자원봉사 활동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분야(64.6%)에서 가장 활발
- 자원봉사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직장·학교(51.8%)를 통해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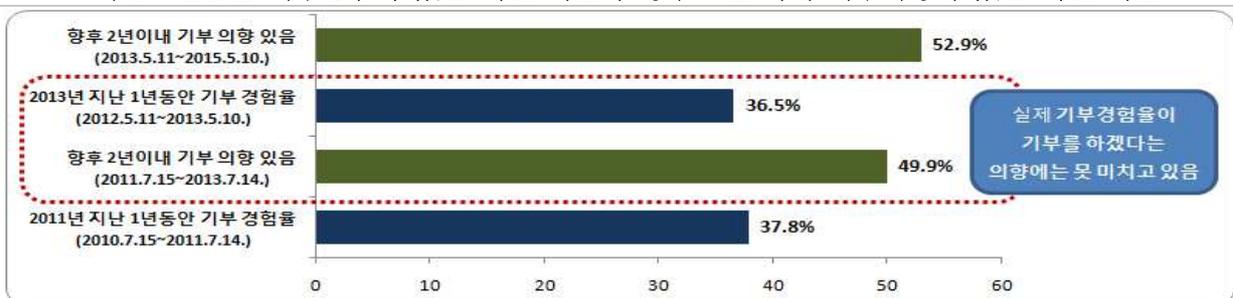
II. 기부 활동

1. 기부율 및 기부의향

- ▶ **지난 1년동안 기부 경험이 있는 시민 소폭 ↓(2011년 37.8% → 2013년 36.5%)**
→ 물품보다는 주로 현금 기부, 현금기부자의 평균 기부횟수는 6.7회
- ▶ **향후 2년 이내 기부할 의향 있다는 시민 ↑(2011년 49.9% → 2013년 52.9%)**

- 2013년 지난 1년 동안(2012.5.11.~2013.5.10.)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중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약 36.5%로 나타났으며, 63.5%는 지난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전혀 없음.
 - 기부경험율(기부율)은 2011년 37.8%에서 1.3%p 줄었음.
 - 만 13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34.2%가 현금기부를 하며, 현금기부 인구 1인당 평균 기부 횟수는 6.7회임.(전체 13세이상 인구 1인당 평균 현금 기부횟수는 2.3회임)
 - ※ 기부경험율(기부율) : 만 13세이상 시민 중 지난 1년동안 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 비율
- 통계로 보면, 서울시민들은 기부 의향은 높은 반면 실제 기부 경험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부 의향이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확산 전략이 요구됨.
 -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2011.7.15.~2013.7.14.)에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만13세이상 서울시민은 49.9%로 나타난 반면, 2013년 서울시민들의 지난 1년 동안(2012.5.11.~2013.5.10.) 기부 경험율은 36.5%에 불과함.
 - 2011년 기준으로 본 향후 2년 이내 통계가 2013년 기부 경험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부 경험율이 기부를 하겠다는 의향에는 못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지난 2년 새 소폭 감소(2011년 37.8%→2013년 36.5%)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2013.5.11.~2015.5.10.)에 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만13세이상 시민은 52.9%로 나타남.

<지난 1년동안 기부경험이 있는 시민 비율과 향후 2년 이내 기부 의향이 있는 시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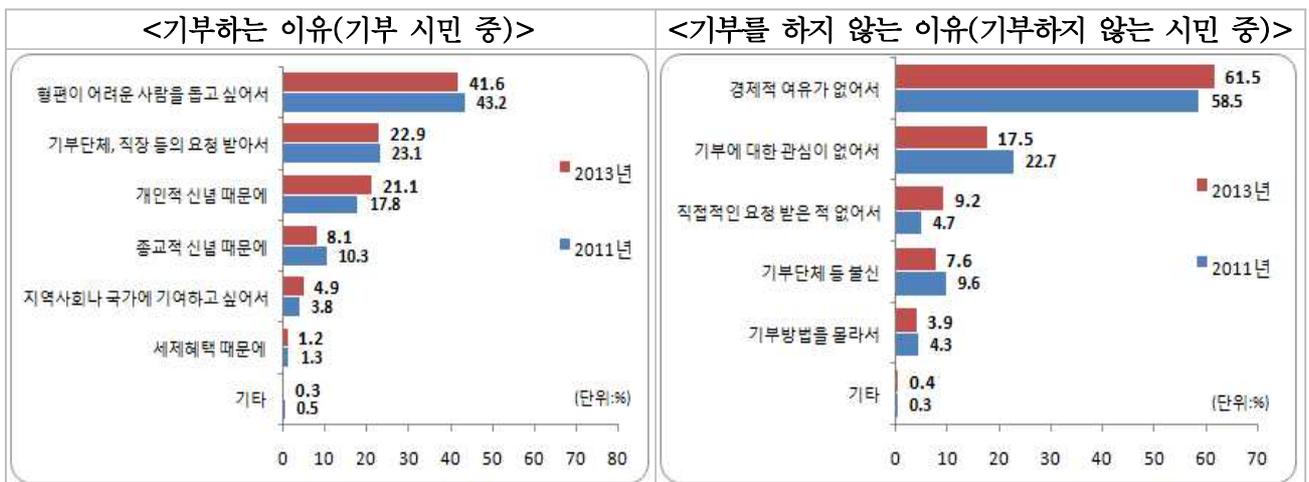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질문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2012.5.11.~2013.5.10.)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부란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게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기부포함 항목은 적십자 회비, 구세군,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한금 등이고, 기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경조금, 정치적후원금, 친목회비, 종교적 현금 등)

2. 기부 이유 및 기부하지 않는 이유

- ▶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41.6%)를 1위로 꼽아
→ 신념 때문에 기부한다는 시민 2011년 17.8%에서 2013년 21.1%로 증가(↑)
- ▶ 기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61.5%)가 가장 높아
→ 기부하지 않는 이유 중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22.7%에서 17.5%로 감소(↓)

-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13세이상 기부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이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41.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부단체나 직장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받아서(22.9%), 개인적 신념 때문에(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본인이 기부를 한 현금이나 물품이 어떤 분야에 쓰이기를 가장 희망하는지 물은 결과 만13세이상 기부시민 중 66.4%가 사회복지분야에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료분야(10.3%), 해외 구호활동 분야(8.7%), 지역사회발전 분야(5.0%), 교육 및 연구활동 분야(4.7%), 공익활동 분야(3.9%), 기타(1.0%) 순임.
- 반면, 지난 1년 동안 기부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만 13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61.5%로 가장 많고,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7.5%), 직접 요청 받은적이 없어서(9.2%) 등의 순임.
- 통계에서 보면, 기부하는 이유 중 신념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2011년 17.8%→ 2013년 21.1%)하고 있고, 기부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감소(2011년 22.7%→ 2013년 17.5%)하고 있어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질문 : 귀하가 기부를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부유형 및 연령별 기부율(2012년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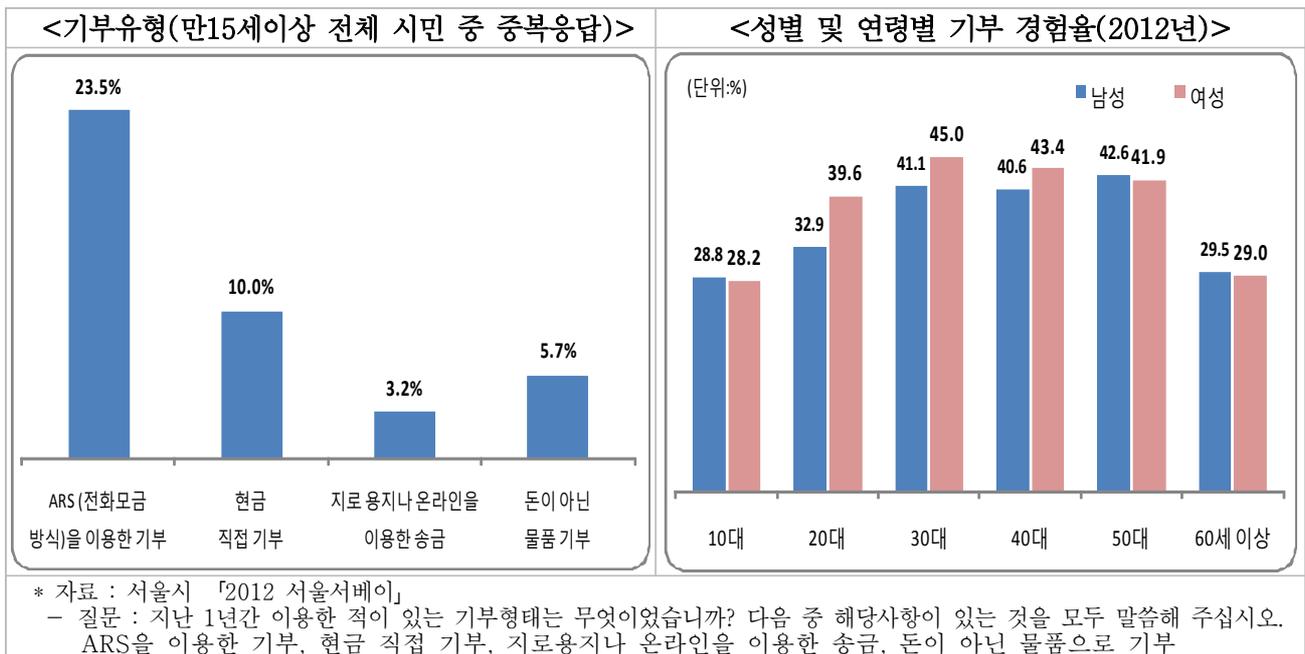
- ▶ 기부유형으로는 ARS(전화모금 방식) 이용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
 - 만 15세이상 시민 중 ARS 이용 기부(중복응답)는 23.5%, 현금직접 기부는 10.0%, 물품기부 5.7%임.
- ▶ 30대 여성 기부 경험율이 45.0%로 가장 높음.
 - 반면, 15~19세와 60세이상 남녀 기부경험율은 30%가 채 안되고 있음.

□ 2012년 서울서베이 자료1)에 따르면, 기부경험자 중 선호하는 기부방식(중복응답)으로는 물품보다는 현금기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지난 1년 동안(2011.10.1.~2012.9.30.) 이용한 기부유형(중복응답)으로는 ARS(전화모금 방식)을 이용한 기부를 한 시민은 23.5%, 현금 직접 기부 시민은 10.0%,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방법으로 기부한 시민은 3.2%로 나타났으며, 돈이 아닌 물품기부 시민은 5.7%라고 응답함.

□ 만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30대 여성 기부율이 가장 높고, 10대와 60세 이상 기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연령별로 기부율을 살펴보면, 30대 여성 기부율이 45.0%로 가장 높고, 40대 여성 43.4%, 50대 남성 42.6% 등의 순으로 기부율이 높았으며,
- 15~19세 남성 28.8%, 여성 28.2%, 60세이상 남성 29.5%, 여성 29.0%로 기부율이 30%가 채 안되는 연령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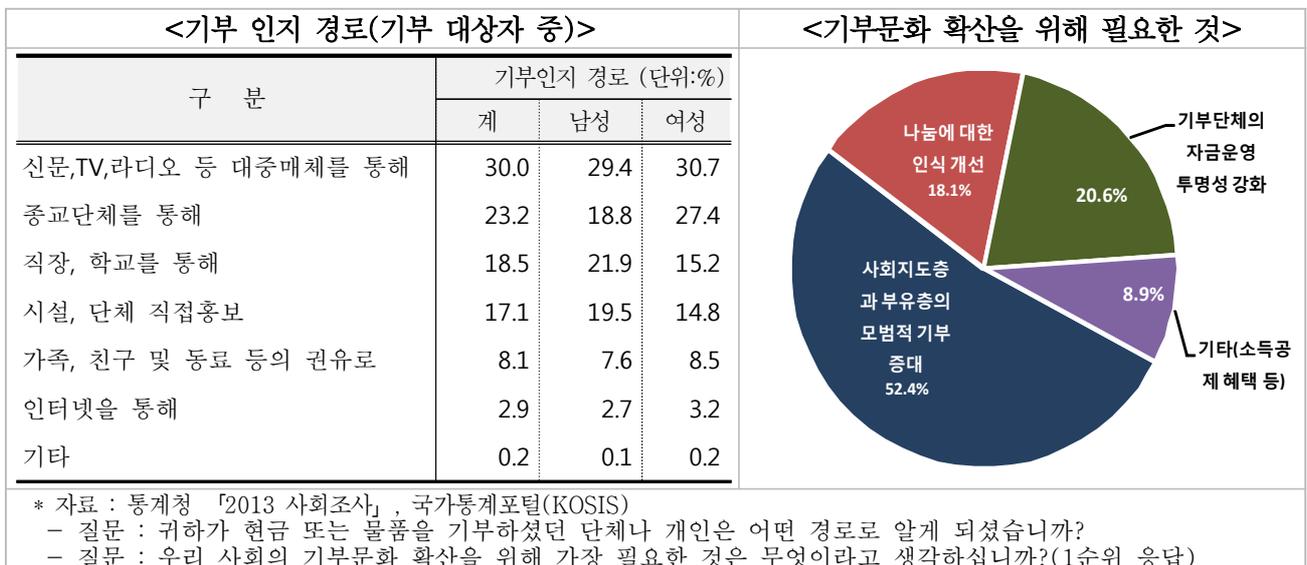


1) 2013 사회조사는 표본 크기가 작아 응답결과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12 서울서베이 결과를 활용함.

4. 기부 인지 경로 및 기부문화 활성화

- ▶ 기부대상자의 기부인지 경로는 대중매체(30.0%), 종교단체(23.2%), 직장학교(18.5%) 순
 → 남성은 직장·학교 및 시설·단체 직접 홍보를 통한 인지 경로가 여성보다 높고,
 → 여성은 종교단체를 통해서 인지한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높음.
-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52.4%)가 가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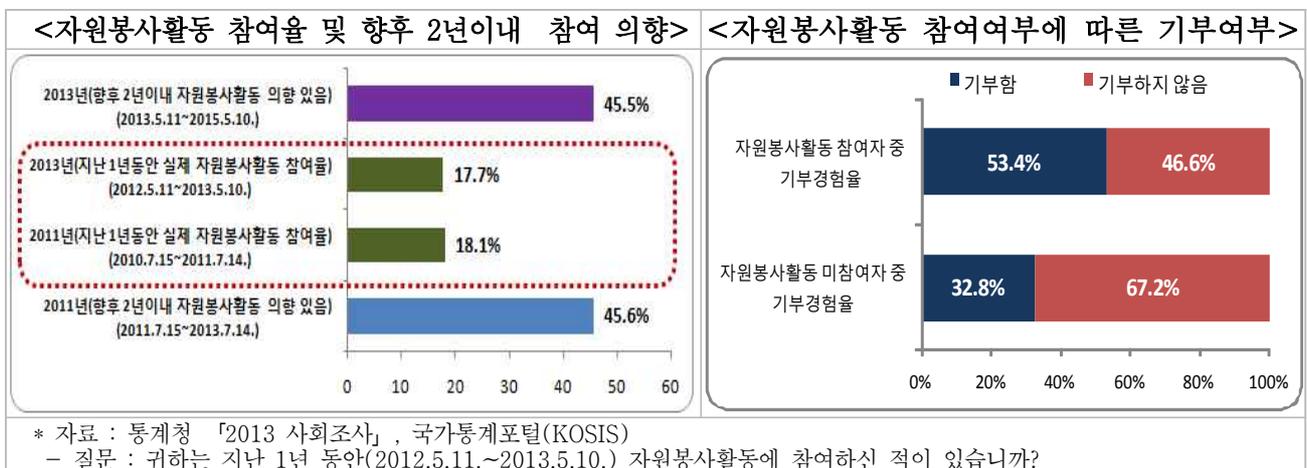
- 기부대상자 중 기부인지 경로는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해(23.2%), 직장 및 학교 통해(18.5%), 시설 및 단체 직접홍보(17.1%), 가족,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8.1%), 기타(3.1%) 순으로 나타남.
- 남성 기부대상 인지경로는 대중매체(29.4%), 직장 및 학교(21.9%), 시설 및 단체의 직접홍보(19.5%), 종교 단체 통해(18.8%) 등의 순이고,
- 여성 기부자의 인지경로는 대중매체(30.7%), 종교단체(27.4%), 직장 및 학교(15.2%), 시설 및 단체 직접홍보(14.8%) 등의 순임.
- 서울시민들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음.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 13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52.4%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증대’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강화(20.6%),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1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III. 자원봉사 활동

5.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의향

-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소폭 감소 2013년 17.7% (2011년은 18.1%)
 -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는 7.8회
 - ▶ 향후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있다는 시민 2013년 45.5% 2011년(45.6%)과 비슷
 - ▶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 기부 가능성 높아, 참여자 기부율(53.4%) > 미참여자(32.8%)
- 2013년 지난 1년 동안(2012.5.11.~2013.5.10.) 만13세이상 서울시민 중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2011년(18.1%) 대비 0.4%p 줄었음.
-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 7.8회임(13세이상 인구 1인당 평균 참여횟수는 1.4회)
- 통계로 보면, 서울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는 높은 반면 실제 참여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미참여자의 참여 의지를 행동으로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필요로 됨.
- 2011년 통계에 따르면, 향후 2년 이내(2011.7.15.~2013.7.14.)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45.6%로 나타난 반면, 2013년 서울시민들의 지난 1년 동안(2012.5.11.~2013.5.10.) 실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7.7%에 불과함.
 - 2013년에는 향후 2년 이내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이 45.5%임.
-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의 절반이상이 지난 1년동안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임.
- 2013년 자원봉사 참여 시민은 53.4%가 기부를 했지만 미참여자는 32.8%만이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남.



6. 자원봉사활동 분야 및 인지 경로

- ▶ 자원봉사 활동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 분야(64.6%)에서 가장 활발
→ 이들 분야 참여자 연간 평균 횟수는 7.9회이며, 1회당 평균 참여시간은 3.6시간임.
- ▶ 자원봉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직장·학교(51.8%)를 통해 인지

- 2013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13세이상 서울시민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한 분야(64.6%)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범죄예방 등과 관련한 분야(16.0%)가 다음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참여한 평균 횟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봉사 7.9회, 자녀교육 봉사 7.3회,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6.3회 등으로 나타남.
 - 참여자의 분야별 평균 참여시간(1회 평균)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봉사(3.6시간), 환경보전, 범죄예방 봉사(3.4시간), 자녀교육 봉사(2.4시간), 국가 및 지역행사 봉사(4.5시간),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봉사(5.0시간),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3.8시간)임.
- 2013년 만13세이상 서울시민이 자원봉사활동을 알게 된 경로는 직장·학교가 5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가족, 종교단체(16.0%), 친구 및 동료의 권유(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평균 참여횟수(중복응답)>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중)>	
자원봉사 분야별 구분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은 자원봉사 참여자 대상임				
	참여율 (%)	참여 횟수 (회)	참여 시간 (1회 평균 시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	64.6	7.9	3.6	51.8	16.0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	16.0	4.4	3.4	13.6	7.9
자녀교육 등	8.2	7.3	2.4	5.7	4.9
국가 및 지역 행사 등	7.9	4.4	4.5	0.2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	3.3	4.3	5.0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14.3	6.3	3.8		

*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질문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참여횟수 및 1회 평균 활동 시간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 복지시설, 병원, 개인가정 봉사, 방과 후 교실 등
 . 환경보전, 범죄예방 등과 관련 : 마을청소, 방법 활동 등
 . 자녀 교육 등과 관련 : 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 국가 및 지역행사 등과 관련 : 스포츠, 문화행사 등에서의 안내, 통역 등
 .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등과 관련 : 해외 구호 포함, 기타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 : 관공서 업무지원, 무료 상담 등